

◆ 교회목표 ◆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 주관 충 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누가복음 14:23)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13)

발행처: 대한예수교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THE WEEKLY CHOONG - HYUN 발행인:신성중 편집인:우기전 편집국장:조선근

## '살아나는 농어촌과 교회성장'

농어촌교역자 초청세미나, 6월 28일~7월 1일, 충현기도원에서

교회는 금년부터 농어촌교역자 초청세미나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오는 6월 28일(화)부터 7월 1일(금)까지 충현기도원에서 농어촌지역 교역자 100여명을 초청하여 3박 4일간 진행하게 된다.

우리 교회는 초창기부터 농어촌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개척, 지원, 농어촌전도대 파송 등으로 도와왔었고, 1972년에는 농어촌교회 교사(평신도)들을 초청하여 훈련시키는 실제적인 농어촌교회 지원방법을 쓰기도 했다.

금년부터 실시하는 농어촌교역자 초청 훈련은 국제적인 개방화로 말미암아 농어촌의 적응력이 약해지고 있는 이때에 농어촌을 힘있게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농어촌교회의 지도자가 먼저 의식적으로, 신앙적으로 올바로 서야 한다는 판단하에 이를 돕기 위해 실시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번 세미나는 농어촌지역의 성장과 복음전도, 농어촌 살리기 운동과 지역향상 개발, 도시교회와의 연대 등에 주안점을 두어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세미나에는 참석자의 왕복교통비와 숙식일체를 교회에서 부담하게 된다. 이

에 경기, 충남북, 강원, 전남 등 전국에서 교역자들의 신청이 들어오고 있다. 농어촌 교역자 초청세미나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1. 주제

- 1) 테마 : 살아나는 농어촌과 교회성장
- 2) 성구 :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역대하 7장 14절)
- 3) 찬송 :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 하신다(252장)

### 2. 기간:1994. 6. 28(화)~7. 1(금)

### 3. 주관부서:교육훈련원 산하 교회성장연구원

### 4. 협력기관:전도위원회(농어촌 전도부)/ 기획위원회/ 기획실

### 5. 주요 교육훈련 내용

- 1) 교회 성장의 길 :  
충현교회 교육훈련원장 신성중 목사
- 2) 폐회설교 :

### 충현교회 김창인 원로목사

- 3) 부흥회 강사 :  
고덕중앙교회 당회장 임석영 목사
- 4) 오늘날 농어민 사상과 기독교 문화의 창달 : 호서교회 당회장 한경호 목사
- 5) 농어촌의 현실과 비전 :  
원지교회 당회장 노우호 목사
- 6) UR대비와 공동체 역할 :  
풀무원 공동체실업자 원경선 장로
- 7) 농어촌 목사의 사명과 경건생활  
왕성교회 담임 길자연 목사
- 8) 농어촌교회의 전도전략  
충현교회 전도위원회 지도 임성한 목사
- 9) 새벽기도회  
충현기도원 지도 유창무 목사
- 10) 분임토의  
제1의제 농어촌교회와 도시교회의 역할  
제2의제 농어촌의 현실과 복음전도

### 6. 초청대상자 선정기준

- 1) 지교회 및 지원교회 목회자
- 2) 농어촌을 살리려는 의욕있는 목회자
- 3) 신학적 기초가 있고 신앙이 보수적인 자

### 7. 초청인원수 : 약 100명

### 8. 교육장소 : 충현교회 기도원

### 9. 숙소 : 전원 충현기도원

## '94 사랑의 결연참여

강남구청에서는 93년부터 장애인, 소년·소년 가정, 무의탁 노인 등 저소득 주민들을 돕기 위하여 관내의 뜻있는 구민, 단체 등과 사랑의 결연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교회는 이 결연사업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에 동참하는 방법은 사랑의 결연 후원금 구좌를 신청하여 매월 후원금을 납부하면 된다. 교회는 이 일을 봉사위원회 예산내에서 5주좌를 결연하여 후원기로 했다.

또한 교회는 제3세계의 굶주린 이웃들에게 떡과 복음을 전해주는 국제선교구호단체인 사단법인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에서 구호품을 청원해 오에 따라 지원금 100만원을 지원기로 했다.

## 선교연구원 제4기 훈련생

선교연구원 제4기 훈련생을 모집하고 있다. 선교연구원은 선교에 관심을 가진 성도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 선교연구원은 매주일 오후 3 - 5시에 베다니홀에서 모이며 52주동안 훈련을 받게 된다. 강사는 국내외 저명한 선교학 교수 및 선교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평신도가 선교훈련을 마치고 선교사로 나갈 경우 교회내에서는 평신도선교사로 파송하게 된다.

접수는 오늘부터 6월 19일까지, 교육국에서 하고 접수시 교구담당목사의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 등록금은 10,000원이다.

### 6·25체험담을 모집합니다.

6·25를 겪은지 만 44년을 맞이 하면서 6·25에 대한 체험담을 모집합니다. 원고지 10매 정도로 자유스럽게 적으셔서 <주간충현 편집실>로 보내주시십시오. (전화 552-8200, 교348, 349)

## 금주의 여름계절학교

- 새가정부(장래에 소망이 있는 가정)  
충현기도원, 6월 5일(주일)~6월 6일(월), 강사 박정규 목사
- 사랑부(지혜로운 어린이)  
교육관 107호, 6월 6일(월), 강사 임성한 목사
- 영어교육부(The joy in God Creation)  
구림농원(경기도 광주소재), 6월 6일(월)

## 금주의 교구별 야외예배

금년은 각 교구별로 야외친교모임을 갖는 해이다. 지난 5월에 이어 6월에도 계속되는데 금주에 모이는 교구는 다음과 같다.

- 제 3 교구 전가족 사랑의 잔치 / 6월 6일(월), 오전 9시 30분, 양재시민공원
- 제 5 교구 야외예배 및 가족모임 / 6월 11일(토), 오후 1시, 보라매공원
- 제 8 교구 총동원 만남의 날 / 6월 6일(월), 오전 10시, 서오릉(북면역에서 159번 승차)
- 제 9 교구 야외예배 / 6월 6일(월), 오전 11시, 태능푸른동산
- 제 11 교구 야외예배 및 단합대회 / 6월 6일(월), 오전 9시 30분, 고덕 제5근린공원
- 제 14 교구 야외예배 / 6월 9일(목), 오전 9시, 양평 밤골농원
- 제 20 교구 야외예배 / 6월 6일(월), 오전 10시, 서울대공원 국립미술관앞 청소년수련장

## 금주의 24시간 연속기도-19, 20, 21교구

지난 2월 23일에 시작한 94년 직분자 24시간 연속기도회는 금주에는 7일(화) 오후 1시까지 19교구가, 이어서 10일 오후 1시까지 20교구, 10일 오후1시부터 21교구가 실시하게 된다.



### 청지기훈련 수료예배

지난 주일(5월 29일) 저녁찬양예배에서는 청지기훈련 수료예배로 드러졌다. 각 교구마다 훈련이 끝날 때 수료예배는 드렸지만 이제는 전 교회적 차원에서, 동일한 프로그램과 동일한 시간과 동일한 강사들로 인해 하나가 된, 우리를 확인하며 수료예배를 드렸다. 모두가 충현기도원에서의 그날을 생각하고 내년을 기다리며,....



## 1. 본디오 빌라도는 어떤 사람인가

### (1) 이름의 뜻과 그의 최후

본래 '본디오'라는 말의 어원은 라틴어의 '폰티우스'(pontius)라는 말에서 나온 것으로 '다섯번째', 혹은 '달'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다섯번째 총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빌라도'라는 말의 뜻은 '검을 든 자', '창검을 든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어원은 자유를 얻게 된 노예 출신들이 머리에 쓰고 다니는 펠트모자가 있는데 그 펠트모자라는 말에서부터 온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가 본래 노예 출신인지 아닌지 그의 과거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그는 디베리오 황제 때인 그는 주후 26년에 유대인의 총독이 되었다가 소환되어 비엔나로 추방, 그곳에서 비참한 나날을 보내다가 주후 36년에 결국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빌라도는 첫째로 주대가 없는 통치자였습니다. 빌라도는 그저 사람들에게 영합하고 인기나 끌려고 했던 자기의 통치철학도 없는 주대가 없는 통치자였습니다. 둘째로 그는 예수님께서 무죄한 것을 발견했으면서도 십자가형을 언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으면 그리스도를 석방시켜야 하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여론에 이끌렸습니다. 이 빌라도에게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기회,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를 증명하고 석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불행하게도 그는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했습니다.

셋째로 그는 편리주의에 빠져 진리의 원리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는 쉽게 백성들의 분노나 여론을 바라바에게 돌리려고 했으나 그의 약은 죄는 백성들의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빌라도처럼 편리주의에 빠지면 안됩니다. 항상 우리에게서 말씀의 원칙, 진리의 원칙이 있어야 하며 그 원칙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원칙을 벗어나게 되면 결국은 빌라도처럼 우리도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 (2) 예수님을 재판한 빌라도

예수님의 재판을 기록한 본문 말씀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 재판 장면은 오늘 우리들을 깜짝 놀라게 할 뿐만 아니라 천사들도 깜짝 놀랄 장면입니다. 재판을 받아야 할 죄인은 재판을 하고 있고, 재판관이 되셔야 할 주님은 죄인으로서 재판을 받는 이 빌라도의 재판! 그야말로 코메디도 아니고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역색적인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은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는 폐자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마치 도갈팡으로 끌려가는 어린양처럼 입을 열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부당한 재판, 그 부당한 판결을 묵묵히 아무 말없이 견디셨습니다.

## 2. 빌라도가 범한 죄와 빌라도가 예수님을 내어준 이유

### (1) 빌라도가 범한 죄

첫째로 그는 국법을 어겼습니다. 국법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자를 처단하고 억울한 자를 선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억울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고 불법을 범한 유대인들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둘째로 그는 양심을 속였습니다. 물론 사회제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법인 양심의 법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 양심의 법을 속였습니다. 셋째로 그는 계시를 어겼습니다. 그 당시 그의 아내의 꿈은 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시를 받아 들이지 않았습다. 넷째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라고 물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의 눈으로 보면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보면서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 (2) 빌라도가 예수님을 내어준 이유

첫째로 그는 군중심리에 사로잡혔습니다. 우리는 군중심리에 사로잡히면 안됩니다. 이 군중, 대중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군중은 감정에 들떠서 진리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며 우리 마음속에 세미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둘째는 심지가 약했습니다. 그는 고집은 있는데도 정말 진리에 있어서는 심지가 약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심지가 약하면 안됩니다.

충현강단



# 빌라도의 재판

(마 27:11-26)



신성종

<목사·당회장>

하나님께에도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에 평강을 다하신다 (사26:3)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주 안에 뿌리를 박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강해야 합니다. 셋째로 그는 가이사가게 충성을 보이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이 예수는 국가 반란자요 가이사에게 저항하는 자인데 그를 살려주면 빌라도 당신은 가이사에게 충성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의 신하가 아닙니다' 라고 했을 때 그는 가슴이 쓰빤했습니다. 넷째로 그는 문제를 너무 간단하게 생각했습니다. 종교문제는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심오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물에 손을 씻는 것으로 간단하게 해결해 버렸습니다. 마지막 다섯째로 유대인들의 제지를 받아서 정치적인 기반을 다질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 3. 빌라도와 이스라엘의 태도

'빌라도는 예수님을 처형하면서도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라 손을 씻었습니다. 본문 24절에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죄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라고 했습니다. 그 자선은 죄가 없다고 회피했습니다. 여러분, 자나 여러분은 다 책임이 있습니다. 먼저 개인에 대한, 자정에 대한, 교회에 대한, 직장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나는 책임 없습니다' 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많은 책임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 이 충동된, 흥분한 무리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얼마전까지만 해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지지했던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주일도 못되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으소서, 바라바를 우리에게 주시오, 예수는 십자가에 못박아야 되겠나이다"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회회한 빌라도와는 반대로 모든 것을 자기들이 책임을 졌습니다. 25절에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바보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과 자신들의 후손까지 그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나선 이 유대인들은 주후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때에 백십만명이 죽었습니다. 또 제2차 세계대전

때에 육백만의 유대인들이 죽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죽인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자기들과 자기 자손들이 다 떠맡겠다고 큰소리친 결

과입니다.

## 4. 본문이 주는 교훈

첫째로 불의와 죄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진리도 깊이 따져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야 할 것이냐, 음식은 무엇을 먹을 것이냐, 휴가를 어디로 갈 것이냐 이런 것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에 대한 것은 타협하면 안됩니다. 신앙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불의와 죄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진리도 깊이 따져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둘째로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드러내는데 그의 권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국가의 지도자만 지도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지도자입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지도자고, 아내가 지도자입니다. 또 우리는 직장에서 지도자입니다. 크고 작은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지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야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는데 자기의 권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물어버리고, 진리를 물어버리는데 사용하게 되면 결국 빌라도처럼 비참한 결과를 봅니다.

셋째로 불의를 행하는 자는 반드시 그 값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는 그냥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아야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판사가 너는 죄없다 했을 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여러 가지의 귀한 직책을 가지고 인기주의에 영합하거나 사람을 기쁘게 하려다가 빌라도처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모든 것은 생각하기 나름



여름철에 조금만 더워도 부채를 갖고, 선풍기와 에어컨을 돌린다. 그러면서도 '아이가 더워' 하면서 덮고 난다. 그렇게 이상한 것은 싸우나탕에 들어가보면 땀을 흘리며 흘리며 '아이가 시원하다' 하고 말한다. 어떤 때는 뜨거운 국을 먹어 물속에 들어가면 '왜 이렇게 시원하지 않나?' 하면서 더 뜨겁게 하려고 난다. 돈을 내면까지 땀을 흘리며 시원해서 좋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생각하기 나름이란 것을 잘 보여준다. 똑같은 반 컵의 물을 보고 어떤 사람은 '반 컵밖에 없다'고 투덜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한 컵이나 남았네' 하면서 고마워 한다. 세상은 문제에서 한 걸음 떨어져서 관찰할 수 있는 여유 있는 삶의 생각과 태도가 필요한 때이다.

글 / 신성종·목사



## 진중세례식에 다녀와서

## 하늘나라 시민권



이 형 주

(권사, 제17교구, 호산나찬양대)

5월 21일 토요일, 충청교회 군전도회 주체로 진행된 논산훈련소 진중세례식에 주의 종들과, 군전도회 회원과 호산나 찬양대가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일행은 훈련소 내무반을 잠깐 둘러보고 군인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직접 준비한 식사를 대접받았습니다. 옛날과는 달리 아들, 손주 군대에 보내도 마음을 놓겠다 싶을 정도로 환경과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대 안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삼천명 이상이 동시에 예배드릴 수 있는 큰 성전을 보고 다시 한 번 놀라고 감격스러웠습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 3,120명이라는 많은 군인들이 그늘진 소나무 숲에 군기있게 정렬되어 앉아 있었고, 각자의 이름들이 어깨 위 하얀 종이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 이름들을 보는 순간 하늘나라 생명록에 이들의 이름이 새겨지는 순간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세례식의 시작을 알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

원로 김창인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장병들이여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당신들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받는 귀한 순간입니다" 하셨을 때 그들의 우렁차고 장엄한 메아리는 우리 모두의 귀를 울리며 분명히 하늘나라까지 사무쳤으리라 믿어집니다.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귀한 이름, 금을 주고도 바랄 수 없는, 우리 믿는 자만이 가질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특권, 하늘나라 시민권!

정말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이 나가 마음껏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소나무 밑에 무릎꿇고 세례받는 젊은 아들들의 장한 모습에 눈시울이 뜨겁도록 감격했습니다. 세례식을 마치고 버스를 타고 오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엄숙하고 뜻깊은 곳에 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세례 받은 장병들과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이 다함께 주님의 재림 나팔소리가 울릴 때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시고, 주님의 오른편에 서는 알곡들이 다 되게 하소서'

그들에게 기념품으로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주고 왔지만 그들의 심비에 하늘나라의 시민권인 증표가 새겨져 각 사람마다 신앙이 자라나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기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젊은 아들들이 악한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같이 영광스러운 세례식에 동참할 수 있었으니 이 웬 사랑이요, 웬 은혜인지요.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훈련소 정문에 들어서서는 순간 굉장한 큰 미루나무 한눈에 보여 마음에 언짢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마저도 기도로 정복하라 하시는 것 같아 믿음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기도는 악마보다 무섭다"라는 어느 기관의 표어가 생각납니다. 우리의 힘있는 기도는 불상 뿐만 아니라 삼팔선이 무너지는 역사적인 사건도 불원한 불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우리는 악마보다 더 무서운 기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성령의 불바다가 이루어져 성경 66권이 다 내 것이라고 믿어질 때 통일된 나라가, 복음을 들고 세계를 향하여 선교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외부 활동 때마다 호산나를 부르시어 쓰임받게 하시니 주님이 주시는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원은 주님이 주신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한알의 밀알이 되어 자신이 씨음으로 새삼 이 나는 믿음의 열매를 맺는 대원들이 되며, 하늘나라에서 인정받는 찬양대로 자신들의 신앙을 기도로 말씀으로 가꾸면서 그 귀한 자리에 설 것을 다짐해 봅니다.

환경에 맞추어 자기 시간에 맞추어 적당히 봉사하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이 '목숨' 다하는 날까지 순교하는 정신으로 최선을 다하여 주를 위해 충성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도 내게 맡기노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더 하소서.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 징검다리

## “목사님, 이 꽃 받으세요”

이 홍 성

(권사, 제17교구, 호산나찬양대)



“목사님 이 꽃 받으세요.” 얼마전 주일 아침의 일이었다. 한 청년이 선교관 지하1층에서 올라오는 나에게 꽃다발을 주는 것이었다. 안개꽃이 아른아른 하는 꽃다발 속에는 예쁜 카네이션 다섯 송이가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얼떨결에 꽃을 받고 보니 꽃을 건네준 청년은 지난번에 섬겼던 교구의 청년이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고 꽃다발을 가지고 교역자실에 돌아오는 나에게 많은 생각이 맴돌았다. 주일 하루의 일과를 정신없이 마친 나는 저녁이 되어서야 그 청년의 집으로 전화를 할 수 있었다. “오늘 나에게 준 선물,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지하에서 올라올 줄 알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선물을 주었습니까?” 그 청년이 하는 말이었다. “아니예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목사님께 선물을 드리려고 여기저기 찾아다녔어요. 마침 그곳에서 만나니 얼마나 반가웠는데요.”

목회를 하면서 갖는 기쁨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청년의 마음을 생각하면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힘을 얻게 된다. 목회는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이기에 인생의 모든 명예도 영광도 다 버린 지 오래다. 오직 이 길을 걸어가면서 흘리는 눈물과 땀방울이 성도들의 인격의 성숙이라는 열매로 맺어질 때 그 속에서 나의 인생의 의미를 볼 뿐이다. 때로는 너무나 고통 뿐인 순간도 있다. 때로는 스스로의 직업적인 타성으로 머뭇거릴 때도 있다. 그러나 인생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

는 목자의 길을 자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된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고후11:29)

참으로 감사한 것은 주의 교회를 섬기는 동안 성도들이 순간순간 함께 기도하며 함께 걸어오는 목사님의 노고를 기억해 준다는 것이다. 교회의 형편상 때때로 교구가 옮겨지기도 하고 교육부서가 바뀌어지기도 해서 성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끊어지기도 하지만 성도들은 그들을 향한 교역자의 수고를 알고 있다.

“목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제 머리가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결혼 후 수년 동안 아이가 없어 걱정하던 가정의 이야기다. “목사님 우리 사위가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대로 서울 가까운 곳으로 근무처가 옮겨졌어요……” 이러한 일들은 섬기던 교구가 바뀌어졌어도 계속해서 들려지고 이제는 그들의 감사하는 마음과 사랑어린 눈동자가 되어서 다시 나에게로 돌아온다.

오늘날 비록 현대 교회가 점점 대형화되고 그 속에서 우리의 인격적 관계가 점점 미약해지는 것 같은 위기감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성도를 향한 주의 종의 중보기도가 있고 이러한 수고를 기억할 줄 아는 성장하는 성도가 있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로 나는 믿는다. 그리고 우리 충청교회는 적어도 이러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든든히 뿌리내리는 축복받은 교회라고 생각한다.

## 물맷돌

##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경에 나타난 진리의 말씀을 조금씩 깨달아 가면서 느끼는 것이 있다. 정말 이 말씀들을 몸으로 행하기는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설교를 통해 듣는 좋은 말씀, 성경공부를 하면서 서로 나누는 은혜의 말씀, 또 혼자 성경을 읽으며 깨닫게 되는 말씀……, 이 말씀들이 머리를 통해, 마음까지는 잘 흘러오다가 몸에 와서 그 속도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 같다.

문득 『말씀이 육신이 되어……』(요 1:1) 말씀이 생각난다.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하늘나라에서만 자리잡고 계셨더라면 과연 그 말씀은 무슨 의미를 가졌으며, 지금 우리들의 삶에는 어떻게 되었을까?

말씀이 육신을 입어 세상에 오셔서 그 육신으로 말씀의 참 의미를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 아닐까?

말씀을 머리와 마음에만 갇두어 둔다는 건 정말 예수님의 제자답지 못한 일이다.

『말씀이 교회가 되어……』, 『말씀이 사상이 되어……』가 아니라 『말씀이 육신(행동)이 되어……』 움직이도록 할 일이다.





## 권사회수련회 은혜 중에 마쳐

5월 30-31일, 교회당에서

94년도 권사회 수련회가 지난 5월 30, 31일 양일간 350여명의 권사들이 참여하여 교회당에서 열렸다.

교회의 영아부, 새가정부, 사랑부실을 숙소로 사용하며, 1박 2일간 모인 수련회는 '세월을 아끼라' (엡 5:16-17)는 주제하에 예배, 특강, 간증, 레크레이션, 저녁 자유기도, 새벽기도, 찬송가 경연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수련회에서 김창인 원로목사는 고린도전서 16장 15-18절 말씀으로 '참 위로자'라는 제목의 설교를, 윤영탁 협동목사는 욕기를 통해 '욥의 경건생활'과 '욥의 모범적 신앙'이란 제목으로 오전과 오후에 특강을, 둘째 날 오전에는 이진숙 사모가 '좋은 권사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했다. 그리고 마지막, 폐회예배는 이조웅 목사가 '네 연세가 얼마뇨?'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참여한 권사들은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권사회의 단합을 이룰 뿐 아니라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 성도들을 섬기고 화평을 이루는데 힘 다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들이 되었다.

또한 교회당에서 1박 2일 진행하기에 불편한 점이 더러 있었지만 교회당 전체를 기도와 교제 등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었기에 좋은 점이 많았고 이번 수련회를 기점으로 새로운 권사회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을 기대하게 되었다.



## 다함께 기도합시다

## ♣ 금주에 기도할 제목 ♣

1. 원로 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지켜 주소서.  
· 김창인 목사 :  
5일(주일) 평택성문교회 부흥집회 인도,  
8일(수) - 10일(금) 부산 장전교회 부흥집회 인도  
· 신성중 목사 :  
·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성령의 강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2. 총현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 주시사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믿음과 건강과 은혜를 주시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게 하옵소서.
3. 김영삼 장로님과 손명순 권사님에게 능력과 믿음을 주시사 대통령의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시며, 건강을 주시고 기도도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4. 우리나라에 전쟁이 없게 하시며 남북이 말씀으로 통일되게 하시며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게 하옵소서.
5. 각 교구마다, 구역마다 배가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 법조인 전도회 법률상담 실시

법조인 전도회에서는 매주일 오전 10시 30분 ~ 오후 1시까지 교육관 108호실에서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법률적 지식이 없어 어려워하거나 법률적 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시간에 오면 상담을 할 수 있다.

상담자는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현직 검사, 변호사들이다.

## 정신여중·고에 소석장학금 지원

도서장학회는 강남구 관내에 우리 교회와 유대를 맺고 있는 정신여중 및 여고에 소석 장학금으로 각 100만원씩을 지원키로 했다.

## 직원모집

교회 사무국에서는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함께 일할 참신한 일꾼을 아래와 같이 모집한다.

- 사무국(총무과) : 0명  
몸과 마음이 건전한 25~35세의 남자 성도로서 운전1종 면허 소지자
- 사서직(도서관) : 0명  
도서관학과를 졸업한 여성
- ◆ 제출서류 : 이력서 1부(사진첨부)  
타교인은 세례증명서 1부
- 제출처: 사무국(552-8200, 교402)

※ 각항 공히 세례교인이어야 함.

## 청지기훈련을 마치고

송기홍

(장로, 총현성경연구원 원장)

교회행사 중에 어느 것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특히 제직의 영적 재충전 및 변화와 헌신을 다짐하게 하는 청지기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행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94 청지기훈련은 계획과 준비가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으나 날씨가 가까워질수록 초조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육관 앞에 대형 현수막을 걸고 주간 총현과 주보를 통하여 청지기훈련의 참가동려와 참가자의 등록접수를 여러차례 광고하였으나 별로 반응이 없어서 답답하던 중 마침내 4월 7일 제1차 훈련 출발번호가 울렸습니다.

단 하루 전에만 참가 등록신청을 하여도 차량, 식사, 간식, 숙소배정 등 준비에 복잡한 것이 적을 터인데 훈련 당일, 그것도 출발 시간 겨우 30분을 앞두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도원에 들어가서 접수를 하게 되니 예상했던 인원보다 초과되거나 미달될 때마다 진행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겪은 고

충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쉬운 것은 참가자들의 마음자세입니다. 타의에 의해서나 교회생활에 지장을 받을까봐 눈치껏 참가하는 부득이함이 아니고, 죄악과 사망에서 구속해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교회를 위하여 기쁘게 헌신할 마음으로 자원해서 참가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주시려고 이번 훈련에 좋은 강사진을 세우시고, 시간마다 은혜가 충만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텅텅이 고물차 같은 나태와 불신앙의 요소는 폐차시키듯이 미련없이 버리고, 믿음과 헌신에 있어서 94 최신행 모델로 바꾸어 거기에 예수님을 모시고 쉼 없이 할 것입니다.

『다시스로 도망하여 내려가는 요나의 불순종을 따르지 말고 일어나 니느웨로 올라가는 순종의 일꾼이 됩시다. 장로, 권사, 집사 이름값을 해야 합니다. 첫째도 기도요, 둘째도 기도요, 그 다음도 기도입니다. 기도가 없는 모든 것이 불가능합니다. 믿

음의 그릇은 크고 깨끗한 것으로 준비합니다. 다섯 달란트 맡은 종과 같이 확보하고 확장하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됩시다. 바나바와 같이 찾아가고 감싸주고 협력하는 포용력있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시간마다 뜨겁게 외치는 말씀들이 훈련에 참가한 이들에게 강력한 도전과 회개와 새로운 결심을 다져주는 능력 그것이었습니다.

청지기훈련은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행사입니다. 더욱 연구하고 발전시켜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반면에 무관심 속에서 성의 없이 치뤄지는 연례행사가 된다면 그것은 마치 잔치상을 차렸지만 먹을 만한 음식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차린 상도 진수성찬이요, 초대받은 손님도 집안에 가득차게 모였지만 손님을 초대하신 주인이 자리에 나타나지 않음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내용은 정성들여서 실속있게 준비하고, 지도층에서 지대하게 관심을 보이고, 책임자들이 맘몰려서 봉사할 때에 얻어지는 열매는 풍성하리라 믿습니다. 훈련에 참가하신 청지기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일기와 아무런 사고없이 은혜 충만한 가운데 큰 행사를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 청지기훈련의 한때

